

식약처, 식의약 공공데이터·AI 활용 우수작 5건 선정

- 총 180건 응모...국민평가단 참여해 최종 수상작 선정
- 독성 예측, 고령층 의약품 안전관리, 의료기기 보안 등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‘2026년 식의약 공공데이터·AI 분석·활용 경진대회’에서 우수작 5건을 선정해 10월 19일 시상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대회는 식약처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, 제품·서비스 개발과 식의약 분야 정책 개선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80건의 응모작을 접수했으며, 서류 심사를 통과한 11건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했다. 발표심사에는 국민평가단* 7명이 참여해, 최종 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.

* 식의약 데이터활용에 관심이 많은 국민 중 성별,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7인 선발

【 2026년 경진대회 수상작 】

- 최우수상(1건, 상금 500만 원)
 - SMART-NAMs(AI NAMs 연구팀) : 식약처 공공데이터와 생명과학 데이터, AI를 활용해 신약·화장품 등의 독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플랫폼
- 우수상(2건, 각 250만 원)
 - CODA(Rx(Reveal X)) : 약물로 인한 인지저하 부작용과 현행 관리체계간 연관성을 분석해 고령층의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
 - 의료기기 취약점 관리(의료기기야 아프지마) :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과 해킹 위험을 분석해 중소 의료기기 업체의 보안 관리 지원
- 장려상(2건, 각 100만 원)
 - 팩트필터(홍다은) : 온라인 허위·과장 광고 위험을 걸러내는 서비스
 - 해아래 담다(알러지 렌즈) : 영유아 식품의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

최우수상 수상작인 ‘SMART-NAMs’는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예측·분석해 영업자의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고,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

※ [활용데이터] 화장품원료성분, 원료물질의 독성정보 등



우수상 수상작인 ‘CODA’는 고령층의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에, ‘의료기기 취약점 관리’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분석과 해킹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식의약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홍보를 적극 확대하고,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아이디어가 식의약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
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의약데이터포털 누리집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* 식의약데이터포털(data.mfds.go.kr) > 소통광장 > 경진대회 > 경진대회 우수작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데이터혁신기획팀	책임자	과 장	김명호 (043-719-1620)
		담당자	사무관	김필현 (043-719-1625)